

투데이칼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국가 균형발전에 거는 기대

최근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2개월여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검토한 결과를 지난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발표했다.

그 핵심은 단순한 정책적 방향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담보하는 국가 균형발전 전략이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비록 2개월여라는 기간이지만 181만건의 집단지성의 의견을 반영한 이번 연구를 통해 새 정부는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를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고,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을 향후 5년간 국정 최우선 목표로 설정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단일 성장 엔진에 의존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은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 자원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인구 감소와 일자리 부족, 산업 공백 등으로 점점 그 힘을 잃고 있어 시급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조만간 아사하고 말 것이다.

이런 불균형은 지방 주민의 삶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어 조속히 대처해야만 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런 구조적 문제를 명확히 진단하고,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대원칙 아래 균형발전 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연구에서 가장 주목되는 전략은 5극 3축을 기반으로 한 다중 성장 엔진 구축이다. 단순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히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과 일자리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여러 개의 경제·산업 엔진으로 나누어 지역마다 특화 산업을 배치하고, 첨단 기술과 AI, 에너지 산업을 결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상 풍력단지과 태양광 입지 확대, AI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등 혁신적 인프라 투자도 병행한다고 하니 전북의 입장에서는 대환영할 일이다.

또한, 자치분권 강화는 균형발전의 또 다른 핵심으로 거론된다.

국정기획위원회 연구 결과, 중앙 집중식 정책과 재정 구조는 지방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억제하는 요인이었다며 이에 국민주권 정부는 국세-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까지 조정하고 지방교부세율을 상향하여 재정 권한을 지방에 확대한다고 밝혔다.

주민자치회와 읍면동 자치시범 도입, 지방시대위원회 기능 강화 등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고, 지방 스스로 정책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전면 개선도 이번 연구에서 강조되었다. 25년 만에 대폭 개편된 예타 제도를 통해 사업 규모 기준을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확대하고, R&D 사업은 예타에서 아예 제외했다. 특히 지역 균형성장 평가 항목을 신설하여, 정책과 투자 결정 과정에서 지방 발전의 중요성을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지방 성장의 실질적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보인다.

연구 결과는 또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약 이행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교육, 문화, 복지 혜택을 지역에서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지역 맞춤형 학교 모델 개발, 생활권 중심 집약형 도시 시범 조성 등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어 전북의 입장에서는 또다른 기대를 갖게 한다.

특히 대통령의 지역 약속인 288개의 시도 단위 공약과 '우리 동네 공약' 1,200건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계된 실질적 약속으로, 기존 공약과 달리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재원과 관리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균형성장 분야에는 향후 5년간 총 60조 원을 투자하고,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 참여와 전문가 조언,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설계도를 작성했다.

또한 국민이 언제든지 의견을 남기고 정부가 신속하게 응답하는 쌍방향 소통 채널을 운영함으로써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번 국정기획위원회의 연구와 발표는 균형발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임을 보여주고 있어 낙후된 전북이 더욱 발전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많은 기대감을 갖게 된다.

수도권 중심의 단일 엔진 성장 모델에서 벗어나 전국을 여러 엔진으로 가동하고, 지방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번 국정기획위원회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분명하다.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대원칙 아래, 균형발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이자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이라는 점이다.

앞으로 이 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때,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북인의 입장에서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사설

어르신 힐링과 허향덕 민요 강사

흥겨운 우리 가락으로 주민 건강에 도움을 주는 70대 민요 강사가 있다. 전주시 완산구 풍남동주민센터의 허향덕 민요 강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허향덕 강사는 풍남동주민센터 2층 다목적실에서 민요 교실 프로그램을 열고 있다.

민요 교실은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열린다.

수강생들은 대부분 70대에서 80대들이다. 이들은 집에서 허향덕 강사가 녹화한 화면을 통해 수업을 받기도 한다. 수업은 3월부터 시작하여 1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수강생들은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 고 있다.

맷길을 올리는 수강생들도 많다. 오래 된 임영자, 조용례, 황장진, 승훈, 박주현, 박영자, 사륜송, 이선애, 박노신, 정승용, 도미혜, 한경남씨 등이 열

성적이다.

허향덕 강사는 “수강생들과 함께 자진머리와 뱃노래 등 민요와 판소리를 큰 소리로 부르고 나면 속이 후련하다”고 말한다.

수강생들의 칭찬까지 받으면서 허향덕 강사는 더 신나게 노래를 가르친다. 물론 스스로도 신나는 민요를 통해 심신의 피로를 풀고 있다.

풍남동주민센터의 주민 자치 프로그램은 주민 여가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민요 교실과 가요 교실은 주민들이 즐겨 찾는 프로그램이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심신이 피로한 때이다.

이런 때일수록 노래를 통해 건강에 활기를 불어넣는 일이 중요하다. 주민들이 즐길 수 있고 힐링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개발 신설해야 할 것이다.

여류명창 진채선의 날

최근 전북 고창군 심원면 사등마을에서 '제5회 진채선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다. '진채선 선양회'와 '진채선 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했다.

진채선(陳彩仙)은 1847년 심원면 사등마을에서 태어났다. 그는 당초 17세 때 판소리 여섯 바탕을 집대성한 동리 신재효 선생(1812~1884년)의 발탁으로 소리를 시작했다.

그 뒤 조선 최초 여성 명창이 됐다. 고종 1867년 경회루 낙성연에서 흥선대원군의 초청으로 성조가(成造歌)와 방아타령을 불러 청중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신재효는 흥선대원군의 총애를 받아 서울에 잠깐 머무르는 동안 '도리화가(桃李花歌)'라는 노래를 지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노래는 가사체로 지금도 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개봉해 많은 팬들의 주목을 받았던 영화 '도리화가'의 실제 인물이며 당

시 아이돌 출신 가수 겸 배우 '수지'가 연기하고 배우 '류승룡'이 함께 했었다.

진채선(陳彩仙)은 남성 못지 않게 성음(聲音)이 웅장하고 기량이 대단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창극사'에서는 진채선을 동원제 명창으로 분류했다. 장기는 '춘향가'와 '심청가'였다.

특히 '춘향가' 중 '기생점교(妓生點考)' 대목'을 잘 불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진채선은 살아 있는 동안 판소리 명창으로 이름을 널리 알렸다. 그 뒤 허금파(許錦坡)와 강소춘(姜笑春) 등 많은 여류 명창들이 나왔다.

오늘날 여류 명창들을 많이 배출하게 된 계기를 만든 것이다. 고창의 '진채선의 날' 행사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명창인 진채선을 추모하고 재조명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독자제언

최근 소상공인을 겨냥한 '노쇼(No-show)'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노쇼' 사기란 주로 음식점이나 소규모 사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이나 병원 등을 사칭한 단체 예약 손님인 척 전화하여 '물건을 납품받으려 하는데, 사정이 있어 00업체에서 물품을 대신 구입해 주면 나중에 돈을 지급하겠다'라는 식으로 접근하여 피해업체에서 주문 및 대금을 지불하면 잠적하는 수법이다.

이들은 업체와의 신뢰 관계를

‘노쇼사기’ 예방, 의심과 확인이 필수

형성하기 위해 위조된 명함, 공문서나 신분증을 대보이는 등 자영업자들의 눈을 현혹하여 노쇼 범행을 자행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관공서, 군부대, 종합병원 등 관계자로 속여 음식자 등에 단체주문을 하고 고급와인 등의 물품을 대리구매 명목으로 구입하게 한 후 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등의 사기 피해가 지속적인

로 발생하고 있다.

대리구매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은 업체는 유령 업체이고, 사기 공범이다.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업체에 주문 대금을 결제함으로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것이다.

이러한 노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불상자로부터 물건 납품을 발의로 특정업체에 대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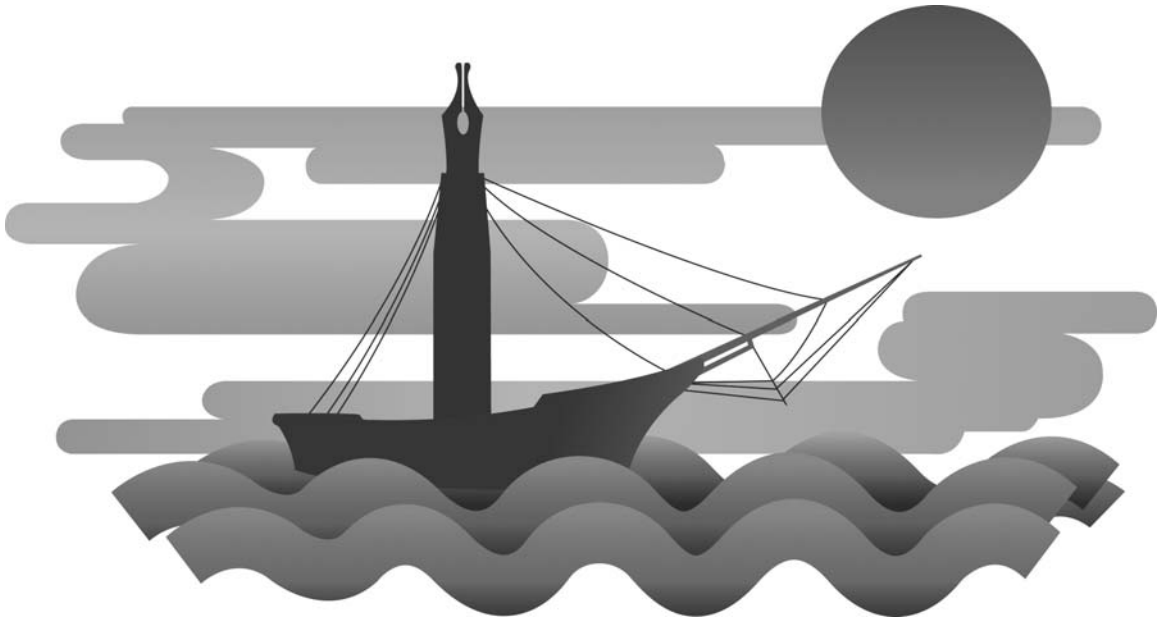
문 후 선결제 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먼저 의심하고 주의해야 한다. 전화 주문 시에는 반드시 주문자가 속한 회사나 단체에 전화하여 신원이 맞는지, 주문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예약금을 지급받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혹시라도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야 한다.

최대인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송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